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변신 중~

입어달라는 소식이 쉽 없이 전해지는 모바일 세상, SNS와 메신저로 쉽 없이 옮겨 다니는 정보들! 이런 세상에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소식이 실려 있는 홈페이지는 접속해 보신 적 있나요? 홈페이지 주소도 잘 모르신다고요?

SBS본부의 주소는 <http://www.sbsunion.or.kr> 입니다. 그럼 현재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 참조)

맞습니다. 우리 SBS노조 홈페이지는 홀로 남겨진 무관심 콘텐츠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작년 7월이고, 자유게시판 이용자도 2008년을 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도 요즘 트렌드와는 다르네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중인 홈페이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의 방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 첫째, 조합원들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 및 디자인 개선.
- 둘째, 모바일 노보, 동영상 노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플랫폼 마련.
- 셋째, 조합 활동 기록에 대한 효율적 데이터 관리 등등……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조합원 여러분께 이렇게라도 더 다가가려 합니다. 디자인의 가독성을 높여, 노조 소식을 검색하는 분들께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중이노보]로만 접하던 노조 뉴스를 수시로 이곳에 올려, 노조 뉴스의 신속성,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 동안 불가능했던 모바일 앱 형식도 제공해 (m.sbsunion.or.kr),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도 불편이 없도록 작업 중입니다. 노조 홈페이지는 개편 작업을 5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5월 23일 정도에는 새 모습으로 조합원 여러분을 찾아 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작업은 오롯이 조합원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노조가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라는 말처럼, 더 많은 조합원이 노조와 회사의 일에 함께 하면, 지상파의 위기라는 이 험한 경쟁의 시대에 SBS는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과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편 된 홈페이지에서 조합 뉴스와 정보도 많이 읽어주시고, 댓글, 자유게시판 등도 부담 없이 생생히 살아있는 SBS본부 홈페이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형식도 지원]

‘그나마’ 보도 SBS.. ‘그나마’도 못하는 ‘그 곳’



최근 SBS의 보도는 ‘그나마’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KBS, MBC와 비교해 그나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총선 기간 내내 북풍 몰이에 여념이 없었던 KBS와 종편 수준의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MBC와의 상대 평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SBS가 ‘그나마’라는 평가조차 받기 어려운 성역이 있다. 바로 청와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초까지 청와대 발 소식을 전하는 60여개의 리포트 가운데 청와대에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 리포트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과 개성공단 폐쇄, 노동 관련 법 개정 추진, 대통령의 총선 개입 논란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들이 줄을 이었지만, SBS 뉴스는 평가조차 민망한 수준의 청와대 스피커 노릇에 충실했다. 대부분의 이슈마다 비판적 접근은커녕 야당과 이해관계 세력의 반론조차 담지 않은 일방적 전달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이란 방문 건이다. 박근혜 대통령 방문 기간 내내 언론들은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체결이 대부분인 경제 성과 발표를 비판 없이 받아냈다. SBS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역대 최대 경제 외교 성과가 창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부 분야에서 2단계 사업까지 수주하면 10조원의 경제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중소 중견 기업들은 6천 114억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된 역대 상담회 가운데 최대 성과입니다”

SBS가 MBC나 KBS와 달리 MOU(양해각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뉴스를 한 꼭지 배치했으나, 이마저도 MOU가 성과를 맺으려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필수라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두고 이란 현지 언론은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한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경제성과가 아닌 이란의 투자유치로 거론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 보도처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역시도 투자가 부실해지거나 이란 체재 리스크가 재현될 경우, 그 부담은 이란이 아닌 한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성 보도에 불과하다.

SBS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자원외교를 무비판적으로 인용 보도한 채 검증 보도에 인색했다. 이 시절 전 세계와 체결한 MOU 96건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고작 16건이다. 자원외교에



동원됐던 공공기관들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 부실화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현실에 눈감은 언론은 곧 그 자체로 부패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 하다.

지난 총선 기간에도 우리 뉴스는 청와대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은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호소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미화돼 전파를 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을 때 보수 언론마저 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나’ 제목의 비판적인 내용의 사설을 내보냈고,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총선을 28일 앞둔 시점에서 대구에 이어 부산까지 찾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SBS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6개월만으로, 하루에 네 가지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45개 중앙언론사 보도 편집국장과의 간담회 소식을 전한 보도 일부를 살펴보자.

MBC 뉴스 데스크

“대통령과 45개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의 간담회는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BS1TV 뉴스9

“박 대통령이 KBS 등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0여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진 첫 간담회 뒤 3년 만이며, 총선 뒤 첫 소통행보입니다. ... 어버이연합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

다고 했고, 세월호특별법 연장 문제는 국회가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SBS 8시 뉴스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현실상,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할 것을 회사 경영진이 보도 책임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러나 MB정권을 포함해 8년 동안 정권에 대한 무비판의 대기는 민생과탄과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권력의 비호 속에 불공정 방송을 일삼는 종편의 고속 성장뿐임을 조합원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하나같이 SBS의 물적, 질적 토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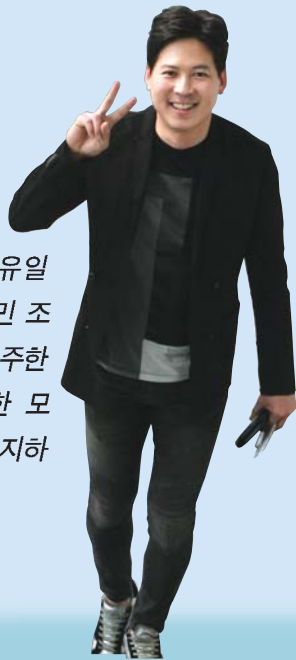
청와대를 성역화하며 비판적 접근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SBS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SBS의 극심한 청와대 눈치 보기와 관련해 “SBS가 자사 보도국장 출신의 청와대 홍보 수석을 아직도 보도 담당 임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70위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정부는 비판을 점점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저 수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의 책임과 존재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은 곧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스스로 생존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지금이라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권력이 아니라 시민과 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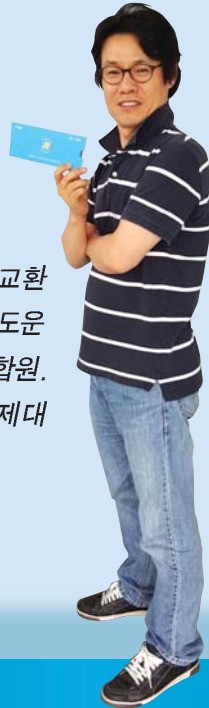
계단오르기는 계속됩니다

'5월의 계단오르기' 행사에는 조합원 87명이 참가해 79명이 완주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조합원에게 '와플 베르비에' 커피숍 쿠폰 1만원권을 드렸습니다.
 완주한 조합원 가운데 10분을 추첨해 런닝맨 운동화 교환권을 지급했습니다.
 6월에도 '계단오르기'는 계속됩니다.
 꾸준히 오르세요. 연말엔 왕중왕도 뽑습니다.

아나운서팀의 유일한 참가자 박찬민 조합원. 계단을 완주한 뒤에도 뽀사시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런닝맨 운동화 교환권에 당첨된 보도운영팀 김준용 조합원. 어린이날 선물 제대로 득템했죠?



22층을 완주하고 기념 포즈를 취하신 영상편집팀 박진훈 조합원입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으로 착각하신 건 아닌지..



지연정 여성위원장은 PR팀 후배 조혜빈 조합원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행사 포스터의 주인공처럼 씩씩하게 완주하며 열심히 행사를 PR하셨습니다~



ENG 카메라를 들고 뛰며 기른 체력 때문인가요. 여유롭게 계단을 오르는 영상취재팀 조창현, 주범 조합원입니다.



운동복까지 갖춰 입으신 스포츠부 권종오 조합원입니다. 22층까지 오른 뒤 "한번 더 오르면 커피 쿠폰 한 장 더 주는 거냐"며 강철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젊은 혈기를 사건팀 생활을 하며 모두 소진해 버리셨나요? 보도국 시민사회부 화강운 조합원입니다. 저 사진은 22층이 아닌 14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도 완주하셨습니다.^^



중도 포기하려는 조합원들을 살인미소로 격려해 주는 노조 한재신 사무처장입니다. 덕분에 중도 포기 조합원이 8명이나 나왔습니다.



건강관리실 변영옥 조합원과 보도기술팀 김지완 조합원은 참가자들의 건강을 마지막까지 챙기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철수하는 집행부를 막아 세운 뒤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른 세 여자. 너끈히 완주하고 살인미소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CG팀 하보영, 허성의, 문계영 조합원입니다.



함께 하는 조합원! 튼튼한 노동조합!



- ☆ 일시 2016. 6. 11(토)~12(일)
- ☆ 장소 파주 화석정 캠핑장 : E구역, 11site / F구역, 12site 예약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 581-11번지)
- ☆ 참가조건 조합원 누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대환영!)
- ☆ 참가신청 노동조합으로 신청순 접수 받습니다. 전화/문자/이메일을 이용해 [성함/부서/동반인원]을 알려주세요 (02-2113-4890 / 010-3194-4641 / suwon@sbs.co.kr)

조합원과 함께하는 캠핑한마당

*노동조합에서 음료/고기 제공
*당일 바베큐파티 참가자도 환영



6월엔 캠핑입니다!

건강한 조합원! 튼튼한 노동조합!

'계단오르기'에 이은 노동조합의 야심찬 기획.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을 맞아 이번엔 캠핑장을 준비했습니다. 캠핑이 좋아도 장소 알아보라, 예약하라 힘드셨다면 이번에 가까운 파주로 오세요! 최초 예약한 12사이트가 노조 게시판에 공지한 지 하루 만에 예약이 완료돼 11사이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조합원들의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팀, 동호회,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겨보시면 어떨지요? 조합원이 건강해야 조합도 튼튼하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 챙기렵니다.

- 일시 : 6월 11일(토)~12(일)
- 장소 : 파주 화석정 캠핑장
- 조합 제공 : 장소 · 저녁 바비큐 및 음료
- 신청 및 문의 : 전화 · 문자 · 이메일을 이용.
02-2113-4890
010-3194-4641
- Email : suwon@sbs.co.kr

노동조합에서는 캠핑 사이트와 바비큐 그리고 간단한 음료만 준비해드립니다. 개별 캠핑장비와 식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6 전국 민영방송 한마당 in 대전

계족산 황톳길 걷기 및 등반

2016년 6월 4일 Sat
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장동 계족산

주관: TJB 대전방송 문의: 042-285-5011

단체 버스는 SBS 목동 본사에서 6월 3일(금) 15시경 출발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조로 전화주세요

02-2113-4890

2016년 민영방송 한마당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SBS 사우어러분,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즐기는 트래킹 여행은 어떠신지요? 한국민영방송협회의 후원으로 각 민영방송사와 민방 노동조합이 해마다 돌아가며 주관하는 민영방송 한마당 행사가 올해는 대전방송(TJB)의 주관으로 대전 계족산에서 열립니다. 계족산은 황톳길 맨발 트래킹으로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산림욕을 즐기는 사우, 가족과 함께 초여름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우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코스로 진행되고, 이동시 교통편 및 숙박,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족을 동반하는 사우들의 가족 숙박도 제공하니 걱정 없이 참가하시면 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드리고 있으니 1박2일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당일 행사에 참가해 산림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 사 : 2016 민영방송 한마당 [계족산 황톳길 걷기 및 등반]
- 일 시 : 6월 3일(금) 18:00 ~ 4일(토) 16: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온천 및 계족산 (장동)
- 주 관 : TJB 대전방송 지부
- 후 원 : 한국민영방송협회
- 참석인원 : 약 300명 예상
- 참석방법 : 전화/문자/이메일을 이용해 [성함/부서/동반인원]을 알려주세요. 신청접수는 노조에서 받습니다.
02-2113-4890 / 010-3194-4641
Email : suwon@sbs.co.kr

신청기간 : 5월 26일(목)까지

주요 행사 내용

6월 3일(금) 19시~ : 환영 만남의 밤 / 유성온천 지역 호텔
6월 4일(토) 09시~ : 계족산 황톳길 걷기 및 계족산성 등반 행사 [계족산 입구(출발) → 계족산성(반환점) → 편편 클래식 무대(도착)]

부대행사 : 솜사탕, 보물찾기, 풍선아트, 캐리커처 등 참석자 전원 기념품 증정 및 도시락 제공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목동 본사 노조 휴게실과 탄현 제작센터 노조 휴게실에 소리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적어 넣어주세요.